

- 2일차 오전(1안)

시 간		주요내용	
09:30 ~ 12:30	180	시티투어(문화유적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야유적지, 봉하마을 투어)	
		9:30	아이스퀘어호텔 승차
		9:40 ~ 10:10	수로왕릉 투어
		10:10 ~ 10:40	봉하마을 이동
		10:40 ~ 12:00	봉하마을 투어
		12:00 ~ 12:30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동
12:30 ~ 13:30	60	등록 및 준비	

- 2일차 오전(2안)

시 간		주요내용	
09:30 ~ 12:30	180	시티투어(봉하마을 투어)	
		9:30	아이스퀘어호텔 승차
		9:30 ~ 10:00	봉하마을 이동
		10:00 ~ 11:00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관람
		11:00 ~ 12:00	봉하마을 투어
		12:00 ~ 12:30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동
12:30 ~ 13:30	60	등록 및 준비	

봉하마을소개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나고 자란 봉하마을은 주호, 용성, 본산, 금봉과 함께 본산리를 이루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봉화산 봉수대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하여 봉하(烽下)라 불립니다.

봉하마을을 감싸고 있는 봉화산은 해발 141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산위에 오르면 사방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생전에 봉화산을 낮으면서 높은 산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관 개요



김해시 봉하마을에 위치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생애, 가치와 철학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정원으로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생가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8살까지 살았던 곳으로 마을의 끝자락에 있다하여 갯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 김해시의 도움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습니다. 대통령은 생가를 복원하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하되, 생가를 방문한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박제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통령묘역



대통령묘역

국가보존묘역(제1호 지정)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너럭바위로 봉분을 삼고 그 위에는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를, 비석받침에는 대통령의 어록 한 구절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故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새겼습니다. 묘역 바닥 전체에 깔려있는 일만 오천여 개의 국민참여 박석에 새겨진 수많은 추모 글이 비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은 김해 봉화산 근린공원의 일부로써 국가보존요역인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중심으로 봉화산 기슭으로부터 봉하들뜰에 걸쳐 2015년 조성되었습니다.

생태문화공원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잘사는 농촌마을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으며, '흙길 따라 풀, 꽃, 나무를 함께 보면서 새소리 벌레소리 들으면서 길을 걷는 삶, 그것이 국민들의 복지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살려 '사람사는들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